



라면 먹는 시간

동평중 3-11 권나영

오늘도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날이다. 엄마와 아빠는 일로 바빠서 내가 내 밥을 챙길 수밖에 없다. 그럴 때마다 나는 라면을 먹는다. 할 줄 아는 요리도 많이 없고, 내가 열심히 만들어도 맛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없는 빈집은 내가 사 온 라면 봉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오늘 내가 먹을 라면은 매운 라면이다. 학교와 학원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것에는 매운 라면이 딱이다.

나는 주방에서 물을 올리고 물이 끓는 것을 기다리며 옷을 벗고 책가방을 정리한다. 끓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라면을 넣고, 라면이 적절하게 익었을 때 물을 버리고 매운 소스를 넣고 잘 버무려지게 비볐다. 배가 많이 고팠던 나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하며 매운 라면을 빠르게 먹었다. 라면이 맵긴 했지만, 그 매운맛에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그 순간에는 조용한 집에서 극적인 영화가 바로 내 앞에서 상영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내가 그 극적인 영화를 느끼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다. 엄마였다.

“딸, 엄마 왔어~ 저녁은 또 라면 먹었니? 그 매운 라면 몸에 안 좋다고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 밥을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 라면을 먹은 거기도 해서 억울한 마음도 들었다. 그렇지만 내가 방금 일하고 온 엄마에게 짜증을 내서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반찬도 좀 꺼내서 집에 있는 걸로 먹어, 알겠지?”

나는 엄마의 말에 대답을 한 뒤 생각했다. 나도 라면이 몸에 좋지 않은 것도 알고, 밥을 혼자 먹기도 외로워서 싫은데 이 원인을 만든 것 같은 엄마가 미워지기 시작한다. 앞서 말했듯이 나도 엄마의 힘듦과 수고를 모르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오히려 첫째로서 엄마가 힘들까 봐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혼자서 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그렇지만 엄마에게 서운하고 짜증이 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나도 아직 중학생이고 따뜻한 밥을 저녁으로 먹고, 다른 가족처럼 모두 다 모여서 밥도 먹고 싶다고 생각하며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냉장고에는 여러 가지 밀키트와 멸치, 김치, 시금치 등 여러 가지 반찬이 있었다. 나는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몰라 엄마에게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물어본다. 엄마는 소고기 전골 밀키트가 있으니 그걸 꺼내서 먹으라고 했다. 그렇지만 나는 오늘 저녁을 빨리 먹고 학원을 가야 하는 날이라 소고기 전골을 끓여 먹고 나갈 시간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엄마에게 연락해서 빨리 학원을 가야 하는 날이라고 소고기 전골을 해 먹고 가면 학원에 늦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엄마는 그건 생각을 못 했다는 듯이 답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엄마에게 그냥 라면을 빨리 끓여 먹고 가겠다고 연락을 했다. 어제와 나와 엄마는 라면으로 싸웠지만 마땅히 먹을 게 없어서 라면을 얘기했다. 엄마는 그러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를 연속으로 먹는 라면은 나도 조금 지겨웠다. 라면을 먹으면서 물리는 맛과 밀

가루 맛이 나는 그 면발이 아직 끓이지도 않았지만 상상이 갔다. 오늘은 너구리 라면을 먹는다. 물을 끓이고, 학원 갈 가방을 싸면서 면이 익기를 기다린다. 너구리 라면은 면발이 굵아서 익는 데에도 오래 걸리기에 더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익어가는 라면을 보며 내일 저녁으로는 뭘 먹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내일이 주말인 걸 깨닫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 라면이 다 익은 것 같아서 앞접시와 수저를 챙겨 식탁에 앉아 영어 단어를 옆에 펴두고 라면을 먹는다. 어제 먹은 라면의 맛은 극적인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맛이었지만, 오늘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다큐멘터리가 떠오르는 맛이었다. 꼬인 면발 하나하나가 거슬리고 평소에는 좋아하던 너구리의 굵은 면발도 더 이상 좋지가 않았다. 그래도 라면을 제대로 먹고 가야 학원에 갔을 때 배가 고프지 않아서 억지로 먹었다.

학원을 가는 차 안에서 밖의 풍경을 바라보니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으며 떠드는 초등학생이 보였다. 나도 초등학생 때는 방과후를 가기 전에 친구들과 모여 라면을 먹던 시절이 있었다. 내가 오늘 먹은 라면과는 다른 의미였고, 다른 감정을 라면에서 느꼈다.

청소기 소리가 들리고 내 방 커튼을 열어 햇빛이 들어왔다. 엄마가 나를 깨운다는 의미이다. 어제 엄마가 늦게 들어와서 인사도 못해서 엄마와 아침 인사를 하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점심시간이 다 되자 엄마는 어제는 또 라면을 먹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엄마가 점심을 차릴 힘이 없어서 저녁은 맛있게 차려줄 테니 점심은 라면을 먹어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나는 또 또 라면을 먹어서 지겨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리겠다고 했다. 엄마는 라면에 파를 썰어 넣고 청양고추도 조금, 그리고 수프와 건더기를 넣은 후 고춧가루도 추가로 넣었다. 그 뒤 마지막으로 계란을 넣

고 뚜껑을 덮었다. 엄마는 맛있게 라면이 잘 끓여졌다고 나에게 라면을
 던져주면서 말했다. 나는 과가 들어가서 국물이 시원하고, 청양고추와
 고춧가루가 들어가 얼큰한 국물을 먼저 한 입 먹은 후, 잘 익은 면을 먹었
 다. 나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지켜왔던 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흡입을
 했다. 라면에는 엄마가 날 생각하며 더 맛있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정
 성과 그 마음이 들어간 게 나에게도 느껴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
 각이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엄마에게 고맙고 미안한 감정이 들기도 했다.
 나는 내가 배가 고파 내가 먹을 것만 신경 쓰고 엄마가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을지도 몰랐다. 나는 엄마의 라면을 통해서 엄마의 진심을 느꼈다.
 엄마가 나를 챙겨주고 싶지 않아서 나를 챙겨주지 않은 게 아니라고, 어
 린 나이의 나를 잘 챙겨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것을 느꼈다. 난 엄마 몰래,
 라면을 먹으며 고마움과 복합적인 마음이 담긴 눈물을 조금 흘렸다.

나에게 라면 먹는 시간은 극적인 영화를 보는 것과 같으며, 지켜온 시
 간 같기도 하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기도 하며 고마움의 존재를 나타내
 기도 하는 그런 의미이다.

